

약가인하 이후 오리지널 처방행태 변화 없어

- 다국적사 점유율 25.0%(4월)에서 24.3%(5월)로 감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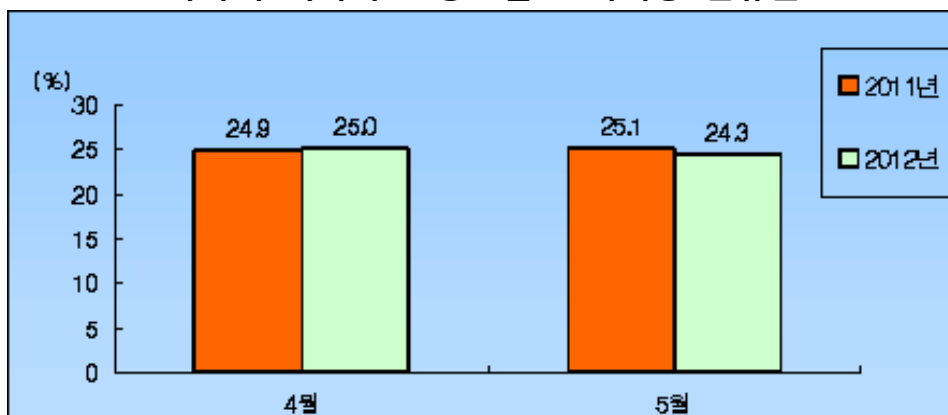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리지널(동일제제 최초등재의약품)과 제네릭의 약가가 동일가격으로 인하된 이후인 2012년 4월~5월 진료분 원외 처방 약품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증권가 분석 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각종 매체의 보도내용이 심사평가원의 4월 진료분 분석내용과 상이한 결과를 보임에 따라 5월 진료분 모니터링 결과에 주목하였으나 5월 분석결과도 4월 진료분의 약품비 청구경향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우선,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5월 총약품비는 전년동기 대비 16.4%(4월 17%) 감소하였지만, 연간 약품비 자연증가율('11년 증가율 4.7%)을 반영할 시는 약 2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사와 다국적사의 품목별 인하율 차이를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5월 다국적사 점유율은 24.3%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8%p 하락한 수치이며, 전월(25%)과 비교해서도 0.7%p 감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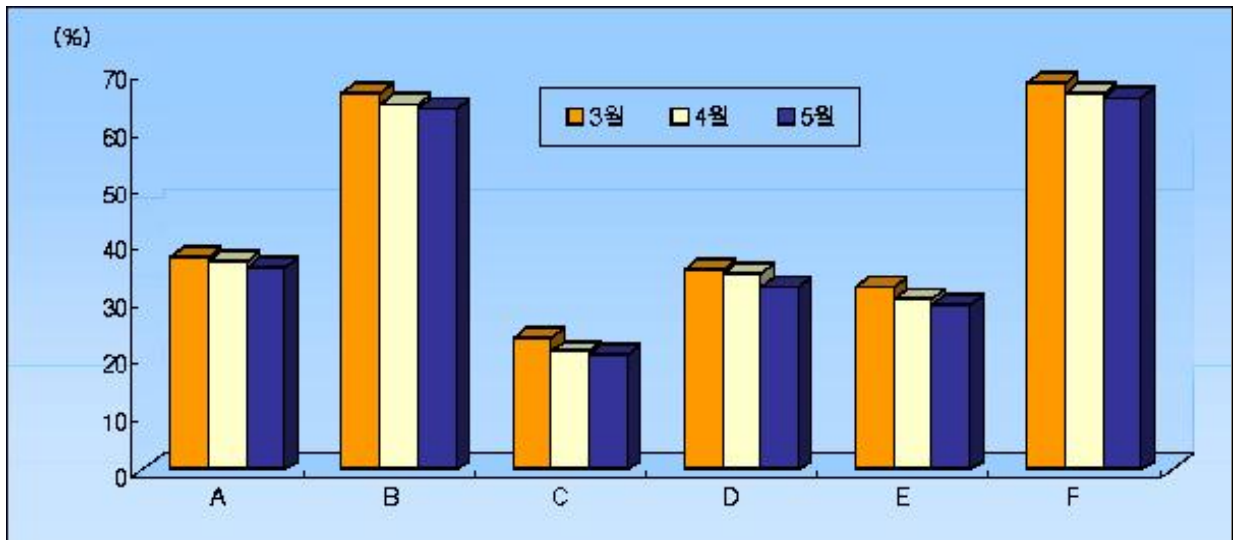
< 다국적 제약사 건강보험 원외처방 점유율 >



* 품목별 인하율 반영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일성분 내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처방금액 비중은 품목별 인하율을 반영하면 전년 동기 대비 4월 1.9% 감소에 이어 5월에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처방량도 1.1%(4월), 2.1%(5월) 감소하였다.

< 주요 오리지널 품목별 원외처방 점유율 >



* 약가인하전 금액으로 보정 후 동일성분내 점유율 산출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제약사 총매출액 변동 및 처방량 증가, 비급여 의약품 처방 증가 등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여 국민의 약품비 부담이 증가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약가재평가 사후 청구경향 모니터링 [요약]

- 2012년 5월 진료분

□ 원외처방 약품비 청구금액 감소

- 2012년 5월 원외처방 청구금액은 총 6,601억원으로 전년 동기(7,902억원) 대비 16.4%(4월 17.0%)가 감소
 - 약제비 자연증가율 4.7%를 포함하면(8,273억원 대비) 청구금액 감소율은 20.2%, 1,672억원 감소

	2011년 5월 (약제비 증가율 반영)	2012년 5월		2011년 4월 (약제비증가율 반영)	2012년 4월	
	청구금액	청구금액	증감율	청구금액	청구금액	증감율
청구금액 (억원)	7,902 ¹⁾ (8,273)	6,601	16.4%↓ (20.2%↓)	7,352 ²⁾ (7,697)	6,099	17.0%↓ (20.8%↓)

1) 2012년 7월11일 현재, 2011년 5월 대비 94.3%의 기관이 청구됨에 따라 2011년 5월 청구총액 8,379억원에 94.3% 적용
 2) 2012년 6월4일 현재, 2012년 4월 대비 89.6%의 기관이 청구됨에 따라 2011년 4월 청구총액 8,205억원에 89.6% 적용

□ 다국적 제약사 청구금액 비중 소폭 감소

- 국내사와 다국적 제약사의 원외처방 청구금액 비중은 2012년 4월 75.0 : 25.0에서 2012년 5월 75.7 : 24.3으로 국내사의 청구가 소폭 증가함

	2011년 5월	2012년 5월	2011년 4월	2012년 4월
전체	100	100	100	100
국내사	74.9	75.7	75.1	75.0
다국적사	25.1	24.3	24.9	25.0

* 2011년 5월 청구점유율을 약가인하 후 품목별 약가인하율을 반영하여 재산출

□ (최초등재의약품의 청구금액 점유율 감소)

(단위 : %)

구분	'11.5월*	'12.5월	변동	'11.4월*	'12.4월	변동
청구금액	55.6	52.9	-2.7	55.3	53.4	-1.9
청구량	49.3	47.2	-2.1	48.8	47.7	-1.1

* 2011년 점유율은 약가인하후 품목별 인하율 반영하여 재산출